

교장의 간행방식과 망실*

A Study on Missing and Publication System of Gyo-jang

오 용 섭 (Oh, Yong-Seob)**

◁ 목 차 ▷

- | | |
|---------------|----------------|
| 1. 서 언 | 3.2 금산사 등 국내사찰 |
| 2. 「교장총록」과 교장 | 3.3 해외 수입 |
| 2.1 완성과 가치 | 3.4 초조대장경 추가 |
| 2.2 교장과 章疏 | 4. 봉안과 망실 |
| 3. 교장의 간행방식 | 5. 결 언 |
| 3.1 흥왕사 교장도감 | <참고문헌> |

<초 록>

의천이 간행을 주도한 교장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교장의 범위를 흥왕사 교장도감본에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금산사 광교원 등 국내 사찰의 개관본과 해외 수입본 등도 교장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더욱이 근자에 공개된 『법원주립』 권82는 교장의 간행사업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주었다. 이제 교장은 1090년 이후의 흥왕사 교장도감 간행본, 1083년경 이후의 금산사 광교원 등의 국내사찰 간행본, 1087년에 송나라로부터의 수입본, 초조대장경이 일단락된 이후 간행된 초조대장경 추가본 등 4부류의 방식으로 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교장 목판은 한 곳에 봉안되다가 일시에 망실된 것은 아니므로 몽고의 침입으로 초조대장경과 함께 모두 소진되었을 것으로 보는 추정은 적합한 판단이 아니다.

要語: 대각국사, 의천, 교장, 교장총록, 교장도감, 법원주립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2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uki@incheon.ac.kr)

접수일: 2013년 5월 30일 최초심사일: 2013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26일

<ABSTRACT>

Eui-cheon play a leading part in engraving and printing of Gyo-jang. The early researchers understood Gyo-jang are woodblocks were engraved from Gyo-jang-do-gam in Hung-wang-sa. The result of successive study and research, We can gain comprehension of Gyo-jang woodblocks were engraved from Gwang-gyo-won in Gum-san-sa and imported from Sòng dynasty.

Furthermore the 82th volume of *Beob-won-ju-rim* was shown to the public recently. Accordingly, we have a new understanding about engraving and printing of Gyo-jang. I can now tell ascertain the facts about Gyo-jang consist of four sections; woodblocks were engraved from Gyo-jang-do-gam in Hung-wang-sa after 1090, woodblocks were engraved from Gwang-gyo-won in Gum-san-sa after 1083, woodblocks imported from Sòng dynasty in 1087, woodblocks added to the First Edition of Tripitaka Koreana.

And All Gyo-jang woodblocks were not stored at one place. Therefore We should know that woodblocks were not destroyed in together with the First Edition of Tripitaka Koreana in Mongolian attacks.

Key words: Dae-gak-guk-sa, Eui-cheon, Gyo-jang, Gyo-jang-chong-rok,
Gyo-jang-do-gam, Beob-won-ju-rim

1. 서 언

고려의 초조대장경이 거의 일단락된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교장의 간행에 대해 이제는 多面의 관점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교장도감에서 간행된 교장뿐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간행된 교장들도 義天이 주도한 교장의 일부분임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근자에는 교장의 일부분이 일단락된 초조대장경에 추가된 사례도 발견되는 등 교장의 간행방식을 포함한 범위와 정체성 등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생겨난 것이다.

대각국사 의천은 송나라에 체류할 당시에 購得한 교장과 요, 일본 및 국내 전존의 교장들을 체계적으로 엮어 『신편제종교장총록』(이하 『교장총록』으로 약칭함)을 1090년에 완성하였다.¹⁾ 이후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교장총록』에 수록된 章疏의 간행을 주도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교장도감을 설치하기 이전부터 금산사 등의 사찰에 교장의 간행을 지원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상당한 수의 교장이 이미 완성되고 있었다. 이렇게 다른 사찰에 지원을 의뢰한 이유는 교감을 거쳐 고려의 독자적인 교장을 간행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내 사찰의 지원을 받더라도 모두 완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의천은 또 다른 방식을 생각하고 이미 수행하고 있었다. 그것은 120권이나 되는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송나라에 각판을 의뢰하였고, 100권의 『법원주림』과 『일체경음의』 등은 초조대장경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의천이 주도한 교장의 간행사업은 교장도감뿐 아니라 국내 사찰의 지원, 해외에서 수입, 초조대장경에 추가하는 등 4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장의 간행이 여러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교장들을 독자적으로 간행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교장도감에서만 이 일을 수행하려했다

1) 『교장총록』은 內題와 저자사항을 따라 『海東有本見行錄』, 『義天錄』이라고도 한다.

小野玄妙, 『佛書解説大辭典』第6卷, 重版(東京: 大東, 1968), 247.

오노겐묘(小野玄妙)는 『제종교장총록』, 『신편고려장목록』이라는 자의적인 명칭을 붙이기도 하였다.

면 至難한 간행사업이 미완성의 시도로 끝나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 의천이 주도한 교장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파악된 만큼 교장의 의미와 구체적인 간행 방식 그리고 교장 목판의 망실 등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살피고자 한다.

2. 「교장총록」과 교장

2.1 완성과 가치

「교장총록」이 수록하고 있는 장소들의 찬술인 비율을 볼 때 입송하여 구득한 불전들이 주축이 된다. 이들의 입수는 고승들과의 교유, 대가의 지불과 함께 사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사찰 지원의 대표적인 사례는 정원이 주석하던 해인원이었다. 곧 의천은 해인원에 소재한 子璿의 부도가 훼손된 것을 보고 비용을 지원하여 중수한 것은 물론 사원의 수리, 불전의 인출, 講會의 조성 등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었던 것이다.²⁾ 이러한 물질적인 지원은 정원의 저술만이 아니라 여러 종파들의 불서들을 입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찰에 대한 지원과 고승들과 교유를 하던 의천은 선종 3년(1086)에 3,000여권의 서적을 購得하여 귀국한다. 귀국 후에는 국내는 물론 요나라와 일본에서도 불서들을 수집한 다음 체계적으로 분류·편성하여 상중하 3권의 목록으로 만들었던 것이다.³⁾ 이 일은 선종 7년(1090)에 교장을 수집한지 “이제 겨우 20년이 되었다.”⁴⁾ 고 하였고, 19세 때 “세자를 대신하여 교장 모으기를 발원하는 소”⁵⁾를 지은 사실

2) 최병현, “대각국사 의천의 渡宋 활동과 고려·송의 불교교류,” 『진단학보』 71-72합집(1991), 363.

3) 徐秀晶,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의 佛敎書誌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3), 32.

서수정은 ‘校勘을 거쳐 새롭게 편성된 여러 經敎와 學宗의 주석 저술들을 일정한 次序로 한데 모은 하나의 총서 목록’이라고 하였다.

4) 新編諸宗教藏總錄序. “搜訪敎迹, 以爲己任, 孜孜不捨, 僅二十載于茲矣.”

5) 『大覺國師文集』 권14. “代世子集敎藏發願疏.”

을 보아 문종 25~27년(1071~1073)경부터 계획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생각한 바를 실천한 점에 대해 “20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장소들을 수집하고 편찬하였다는 사실에서 의천의 호법정신의 지극함을 발견한다.”⁶⁾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고승들의 장소들을 단기간에 수집을 망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일단락을 지은 시기가 『교장총록』을 완성한 1090년이었다. 그렇지만 『교장총록』에 수록하지 못한 장소들이 제법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의천은 『교장총록』의 서문에서 “이것은 草本이므로 후일 거듭 넓히기를 기다린다. 만일 누락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달라.”⁷⁾고 하였고, 또 “이후에 얻게 된 것이라도 또 따라서 수록하고자 하며, 빠진 것도 무궁하게 전해지기를”⁸⁾ 바랐던 것이다. 이렇게 의천 스스로 『교장총록』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후일 보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 두고 있는 것이다.⁹⁾ 그래서 김부식이 의천의 비명에서 그의 지대한 업적인 『교장총록』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의천의 수집물이 기본이 되었지만 후학들이 지속적으로 교장을 모아나갔기 때문”¹⁰⁾으로 이해되기도 하는 것이다.

아무튼 의천은 『교장총록』을 완성한 이후에도 11년간 더 생존하였으므로 새로운 장소들을 제법 수집하고 간행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교장총록』에 수록되지 않은 『華嚴經談玄決擇』¹¹⁾ 등이 흥왕사의 교장도감에서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6) 이영자,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의 독자성,” 『불교학보』 19집(1982), 181.

7) 新編諸宗教藏總錄序. “此是草本, 俟後重廣, 如有漏落, 觀者恕之.”

8) 新編諸宗教藏總錄序. “後有所獲, 亦欲隨而錄之, 脫或將來編次函帙, 與三藏正文, 垂之無窮, 則吾願畢矣.”

9) 일본 승려 運敞은 寬永 21년(1644)에 목록을 베끼면서 당시 일본에 유통되던 장소류가 빠진 것을 보고 “이 목록은 미진하다(運敞, 『新編諸宗教藏總錄』 卷尾 [跋文], ‘且又此錄本, 未爲盡矣.’)”고 하였다.

10) 李仁在, “金富軾과 朴浩·林存의 義天 評價,” 『歷史教育』 99집(2006. 9), 132.

11) 이 불전은 권1의 “賢首傳1卷, 浮石尊者傳 1卷 已上 崔致遠述”에 해당한다. 『신편제종교장총록』에는 異書名을 사용함으로써 수록여부에 대한 오해도 있었다. 곧 이케 우찌 히로시(池内 宏)는 “大安 8년(1092)에 세긴 崔致遠의 『法藏和尚傳』이 총록에 편입되지 않은 것”(“高麗朝の大藏經:上,” 『東洋學報』 第13卷 第3號(1923), 44)으로 보았다. 그러나 오노 겐묘(小野玄妙)에 따르면 『법장화상전』은 “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

이후 辯眞에게 “『교장총록』 2책 등을 보낸”¹²⁾ 사실과 “『新集教乘目錄』을 주시어 경사스러움을 더하였다.”¹³⁾ 고 한 法隣의 답신에서 보듯이 『교장총록』을 송나라의 승려들에게 보내주었고, 또 일본으로도 유출되었다. 그러므로 『교장총록』의 편찬과 교장의 간행사업은 국제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多面的인 의천의 敎學的, 思想的 면모를 보여주며, 일본불교에 영향을 끼쳤다.”¹⁴⁾거나 “송과의 문화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 요의 문화수준에 대한 일정한 인정, 일본문화에 대한 경시라는 고려의 정치 외교적 입장을 잘 반영”¹⁵⁾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교장총록』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시도된 사업이자 당시 유통되던 고승들의 장소를 대부분 수용하였기 때문에 “동아시아 불교학자들의 장소목록이라는 독창성”¹⁶⁾을 가진다. 또한 천태종 고승들의 저술을 수록해놓아 천태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곧 천태종 관련 저술은 『교장총록』이후 약 200년이 지나서야 『佛祖統紀』에서 집대성되므로 11세기의 천태종의 사상 연구는 이 『교장총록』을 통해 이해할 수밖에 없기¹⁷⁾ 때문이다. 또 편입된 불전과 찬술인에 대한 서지작성의 의문¹⁸⁾도 오히려 저자와 저술의 상관관계 연구에 근거

和尙傳』의 약서명으로 『법장화상전』, 『賢首國師傳』, 『賢首大師傳』, 『賢首國師別傳』, 『賢首傳』 등으로도 불린다(『佛書解說大辭典』, 제3권의 215, 제10권의 112).

이 불전은 권1의 “賢首傳1卷, 浮石尊者傳 1卷 已上 崔致遠述”(『신편제종교장총록』 3권, 16)과 같이 『현수전』이라는 이서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 12) 『大覺國師外集』 권5 제2, [題名缺: 내용은 辯眞이 義天에게 보내는 편지], “辯眞啓… 兼承惠及圓宗文類, 將近十年… 李綱首廻, 承惠及海東李公顥所□夾注金剛經一冊, 斷疑金剛經一冊, 金剛經集解一冊, 并教藏總錄二冊, 唯識論單科三冊.”

- 13) 『大覺國師外集』 권7 書, 大宋沙門法隣書. “又延慶寄彼新集教乘目錄.”

- 14) 최은영, “新編諸宗教藏總錄에 대한 재고찰: 일본 章疏目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佛敎學報』 57집(2010), 112.

- 15) 박노자,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 편찬, 교장 간행의 문화사적 의미,” 『사학연구』 제58·59호(1999), 529.

- 16) 최은영, “新編諸宗教藏總錄에 대한 재고찰: 일본 章疏目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佛敎學報』 제57집(2010), 91.

- 17) 林 鳴宇, “『新編諸宗教藏總錄』から見た宋初天台の動向,” 『印度學佛敎學研究』 51-2號: 通號102(2003. 3), 573.

- 18) 본각, “『十二因緣觀』의 저자와 사상에 대한 재고찰”(서지사항불명)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교장총록』에는 “禪家の 저술이 보이지 않고, 일본의 장소를 외면했으며, 고려 均如나 曇琳의 장소까지 배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의천의 嚴選僻과 敎宗觀”의 탓으로 본다.¹⁹⁾ 그러나 어렵게 입수한 일본 학승과 균여 등의 장소들을 수용하지 않은 점은 이러한 점 외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곧 동아시아 최초로 正藏을 보완할 수 있는 교장을 완성하고자 한 의천의 입장에서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나 향찰로 된 장소들은 수록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제종이란 불교의 여러 종파를 의미한다. 의천이 활동하던 고려 중기에는 종파에 대한 정의나 구분이 불명한 시기였던 만큼 고려의 기준으로는 종파의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교장총록』에 수록된 다양한 장소들은 대부분 중국인 찬술이다. 그러므로 제종이란 국내 불교계의 종파에 대한 구분보다는 중국불교의 종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2 교장과 章疏

의천이 간행한 교장을 1920~30년대에 일인학자들이 續藏으로 일컫자²⁰⁾ 초기의 국내 학자들도 이를 따랐다.²¹⁾ 續大藏經의 약어인 속장이라는 용어가 개념의

요약에서 “十二因緣觀 1卷 澄觀 述”에 대해 정관의 저술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지만 총록에 이렇게 수록된 것을 보면 의천이 “단순히 오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연구도 하나의 사례가 된다.

- 19) 민영규, “신편제종교장총록(1090),” 『한국의 고전백선』: 신동아 1959년 1월호 부록(1959), 55. 한기문, “고려전기 부인사의 위상과 初雕大藏經板소장 배경,” 『한국중세사연구』 제28호(2010), 162.

그러나 『교장총록』 권1의 “仁王經疏 一卷”에 “近從日本國流通云…待勤”이라는 세주에서 보듯이 일본에서 입수된 장소들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 20) 池內宏, “高麗朝の大藏經(上),” 『東洋學報』 제13권 제3호(1923).
大屋德城, 『高麗續藏雕造攷』 (東京: 便利堂, 1937).
21) 朴奉石, “義天續藏의 現存本に就いて,” 『朝鮮之圖書館』 제3권 제6호(1934).
최남선, 『국민조선역사』 (서울: 동명사, 1946), 82.

정립도 없이 그대로 수용되어 버린 것이다. 현재 『속장경』이라는 서명으로 간행된 전질에는 고승들의 찬술과 三藏에 대한 연구 주석서들이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²²⁾ 아마 삼장에 속하지 않은 불전들은 모두 속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의천이 간행한 교장은 고승들의 연구 주석서인 章疏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이 생각한 속장과는 범위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제시된 근거는 약간 다르지만 고려교장²³⁾ 또는 교장²⁴⁾이라는 명칭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현재는 교장으로 일컫고 있다.

장소란 “篇章을 구분하여 教義를 논설한 것을 章이라고 하고, 경론의 문구를 通釋하는 것을 疏라고 하는데 중국과 주위 나라에서 저술된 불교서적”²⁵⁾을 일컫는다. 곧 개개의 불전에 대한 연구와 주석서라는 뜻이다. 그런데 의천은 『교장총록』의 서문에서는 “장소가 없어지면”, “教迹의 수집이 자신의 임무”, “諸宗義章을 모아 三藏正文과 함께 만세에 드리우는 것이 본래의 소원이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장소, 교적, 제종의장 등은 불전의 연구 주석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의천은 장소의 의미로는 교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²⁶⁾ 또 송나라의 승려들과의 편지에서도 教乘數目,²⁷⁾ 教乘目錄,²⁸⁾ 章疏目錄,²⁹⁾ 教迹³⁰⁾과 같이 교승,

22) 『新纂大日本續藏經』(東京: 國書刊行會, 1980), 『卍續藏經』(臺北: 新文豐 出版公司, 1977), 『卍續藏經』의 국내 영인판인 『續藏經』(서울: 보림각, 1977) 등에도 속장의 개념이나 정의가 없다.

23) 김영태, “大覺國師의 高麗敎藏,” 『韓國佛敎史正論』(서울: 불지사, 1997), 532-534. 김영태 교수는 “교장이란 章疏를 한데 모아 한 묶음의 佛典으로서 叢書化하여 자리 매김한 것이며, 속장이란 교장의 佛典의 성격이나 위치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의 묶음으로 형성된 佛典 총서의 일컬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24) 박상국, “의천의 교장: 『교장총록』의 편찬과 교장간행에 대한 재고찰,” 『보조사상』 11집(1998. 2), 83-85.

25)慈怡 主編, 『佛光大辭典』(臺灣 高雄: 佛光出版社, 1988), 4836.

26)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序. “予嘗竊謂, 經論雖備, 而章疏或廢, 則流衍無由矣. 輒効昇公護法之志, 搜訪教迹, 以爲己任, 孜孜不捨, 僅二十載于茲矣. 今以所得, 新舊製撰, 諸宗義章, 不敢私祕, 敘而出之, 後有所獲, 亦欲隨而錄之. 脫或將來, 編次函帙, 與三藏正文, 垂之無窮, 則吾願畢矣.”

27) 『大覺國師外集』 권3, 大宋沙門淨源書 第2首. “昨示貴國教乘數目.”

28) 『大覺國師外集』 권2, 書 第2首. “所示貴國見行教乘目錄 仍求此方諸家撰錄者.”

『大覺國師外集』 권7, 大宋沙門法隣書. “又延慶寄彼新集教乘目錄.”

장소, 교적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일반적인 불전의 연구 주석서라는 의미로는 교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의천보다 약 한 세기 이전의 고려 고승인 諦觀(?~970)의 『천태사교의』에는 “會昌의 法難으로 중국에서는 교장이 殘缺되었으나 고려는 온전하고 성대하므로 고려에서 一家의 장소를 구하였다.”³¹⁾고 되어있다. 물론 이 내용은 천태의 연구 주석서에 대한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교장은 결집된 장소를 뜻한다. 또 송나라의 慈雲大師 遵式(964~1032)이 천성 2년(1024)에 천태종을 대장경에 편입시키고 『敎藏隨函目錄』을 편찬하여 여러 종파의 大義를 간략하게 기술하였다.³²⁾ 여기에서도 교장은 여러 종파의 장소들을 의미한다.

의천은 “모든 불가의 科教를 일장으로 집대성하여 유통”³³⁾시키겠다고 다짐하였다. 곧 그가 생각한 교장도 장소들의 一藏을 의미한다.³⁴⁾ 그래서 의천은 송나라에서 입수한 3,000여권을 제종교장이라고 하였고,³⁵⁾ 총 목록의 이름도 『교장총록』이라고 한 것이다.³⁶⁾ 그러므로 의천이 교장이라고 한 것은 “敎”의 “一藏”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³⁷⁾ 곧 경율론을 집대성한 것이 “대장”, 경율

29) 『大覺國師外集』 권3, 大宋沙門有誠書 第2首. “比承示及帶來章疏目錄一卷 焚盥周覽 仰讚無窮.”

30) 『불교용어사전』 (서울: 경인문화사, 1998), 157.

“敎迹”이란 “부처가 설한 가르침의 자취”라고 되어 있다.

31) 諦觀, 최기표 옮김, 『天台四敎儀』, 四敎儀緣起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27-33. “時遭安史兵殘, 近則會昌焚毀, 中國敎藏, 殘闕殆盡. 今惟海東高麗, 闡敎方盛, 全書在彼. 王聞之慨然, 卽爲遣國書贊幣, 使高麗求取一家章疏.”

32) 慈怡 主編, 『佛光大辭典』 (臺灣 高雄: 佛光出版社, 1988), 6317.

33) 『大覺國師文集』 권14, 代世子集敎藏發願疏. “凡有百家之科教 集爲一藏以流通.”

34) 천혜봉, 『고려대장경과 교장의 연구』 (서울: 범우, 2012), 206.

천혜봉 교수는 “교장이란 한나라 이래 이루어진 한역의 正法三藏에 대한 신구찬술인 諸宗敎義章과 鈔疏를 일컬으며 줄여서 ‘章疏’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35) 『大覺國師文集』 권8. “至本國境上乞罪表”, “以至慈恩賢首之宗 台嶺南山之旨 濫傳爐拂 謬事箕裘 如同學步之人 已類知還之鳥 … 花嚴大不思議論等 諸宗敎藏 三千餘卷 於今月十二日 離明州 十九日放洋 已到國境.”

36) 물론 『교장총록』을 완성한 이후에는 『교장총록』이라고 하고 있다.

『大覺國師外集』 권5, 書 第2首. “李綱首廻 承惠及海東李公類所□夾注金剛經一冊 斷疑金剛經一冊 金剛經集解一冊 并敎藏摠錄二冊 唯識論單科三冊 灌手焚香 捧授之次良增感愧.”(1096년 이후)

론의 연구 주석서를 집대성한 것이 “교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대장경은 거의 완성되었으므로 “경을론 삼장에다 교장을 더하여 경·율·론·교의 四藏을 만들고자 한 것”³⁸⁾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교장이란 의미가 반드시 一藏의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곧 장소를 보관하던 곳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된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팔만대장경(신조대장경)의 보유관인 『釋華嚴旨歸章圓通鈔』와 『釋華嚴教分記圓通鈔』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곧 『석화엄지귀장원통초』 권하의 권미에는 “홍왕사의 교학승통인 본강화상 천기가 갑오년(1234)에 개태사의 옛 수장고에서 이 책을 찾았다. 옹희 4년(987) 3월에 베껴서 넣은 교장본이다.”³⁹⁾고 하였고, 『석화엄교분기원통초』 권1의 권미에는 “옹희 4년(987) 4월에 베껴서 개태사의 교장에 넣었다.”거나 중희 11년(1042)에 “베껴서 光敎寺의 교장에 넣었다.”⁴⁰⁾고 되어 있는 것이다. 위 기록의 대체적인 의미는 균여가 저술한 불서에서 방언을 삭제한 다음 개태사와 광교사의 교장에 수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록에서 교장의 의미는 각 종파 또는 사찰에서 교육용으로 관리하던 수장고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⁴¹⁾ 곧 경을 둔 곳이 “經藏”이라면 장소를 둔 곳은 “敎藏”인 것이다.⁴²⁾

37) “寄日本諸法師求集敎藏疏”와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에서 사용된 교장 또는 제종교장의 의미도 개개의 장소가 아니라 일장의 장소를 염두에 두고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8) 이종수, “초조대장경과 속장경의 편찬,” 『법회와 설법』(2008. 7), 101.

39) 『釋華嚴旨歸章圓通鈔』 下. “本講和尚, 興王寺, 敎學僧統, 天其, 以甲午年, 始住開泰寺, 於古藏, 搜得此本. 乃八德山旼法師, 圓通首座, 均如所說, 而雍熙四年丁亥三月三十日竟, 寫入敎藏本也.”

40) 『釋華嚴教分記圓通鈔』, 권1의 권미. “雍熙四年丁亥, 四月日竟, 寫開泰寺敎藏入 … 重熙十一年壬午, 十月日竟, 寫入光敎寺敎藏.”

41) 이지관 편저, 『가산불교대사람』 (서울: 가산불교문화원, 1998), 316. 敎藏은 “경전을 소장한 곳. 곧 장경각 또는 經藏과 같은 말이다.”

42) 徐秀晶,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의 佛敎書誌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3), 26(사찰에서 전해 내려온 경전이나 제종의 찬술서를 보관하는 장소를 언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해 본다).

최은영, “新編諸宗教藏總錄에 대한 재고찰: 일본 章疏目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佛敎學報』 제57집(2010), 111(주요사찰에서 만든 장소목록을 교장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3. 교장의 간행방식

일찍이 오오야 도쿠조(大屋徳城)은 “함호가 없는 점, 속장 원간본의 잔본이 극히 남아 있지 않는 점, 『교장총록』에 수록된 經疏가 고종 때 대장도감에서 개관된 사실, 의천의 활동과 같은 시기에 홍왕사가 아닌 금산사에서 개관된 점” 등의 이유를 들어⁴³⁾ 교장은 모두가 간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욱이 『法藏和尚傳』의 간행시기인 대안 7년(1090)부터 의천이 입적한 숙종 6년(1101)까지 약 10년간⁴⁴⁾에 걸친 관각기간에 “개관의 證跡이 있는 것은 총 100부가 되지 않으며 이는 『교장총록』에 수록된 것의 10분의 1에 미치지 않는다.”⁴⁵⁾며 교장은 아주 일부만이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오오야 도쿠조가 이렇게 판단한 원인은 교장의 간행방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 있었다. 물론 “의천이 4천권의 불서를 홍왕사의 교장사에서 새겼다.”⁴⁶⁾는 기록과 “홍왕사에 교장도감을 두고 요, 송, 일본에서 구입한 서적 4,000권을 모두 간행하였다.”⁴⁷⁾는 기록들을 부정하기에는 근거가 박약한 것도 사실이다.

교장의 간행은 『교장총록』을 완성하기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부분적인 간행사실은 『金山寺慧徳王師眞應塔碑』 등에서 알 수 있고, 1088년 11월 이전⁴⁸⁾

43) 大屋徳城, 『鮮支巡禮行』(京都: 東方文獻刊行會, 1930), 101-113.

44) 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攷』(東京: 便利堂, 1937), 55.

선구적인 국내 학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朴奉石, “義天續藏の現存本に就いて,” 『朝鮮之圖書館』 제3권 제6호(1934), 32(1090년 전 후부터 1099년 사이).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서울: 經書院, 1982), 82-89(國師가 興王寺에 敎藏都監을 公的으로 설치하기 전에 또 목록편성이 완성되기 전에도 각처에서 開板을 한 것 같다).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서울: 景仁文化社, 1978), 95(訪書여행을 마치고 돌아 온 1091년부터 입적한 1101년 10월까지의 10년여).

45) 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攷』(東京: 便利堂, 1937), 63-64.

46) 金富軾, “高麗國五冠山大華嚴靈通寺贈諡大覺國師碑銘并序,” (許興植,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578-579). “無慮四千卷… 請置敎藏司於興王寺, 召名流校正謬缺, 使上之鉛槧.”

47) 『高麗史節要』卷6, 宣宗思孝大王 丙寅3年(1086). “又於興王寺, 奏置敎藏都監, 購書於遼, 宋, 日本, 多至四千卷, 悉皆刊行.”

48) 오용섭, “『신편제종교장총록』의 續藏受容性,” 『서지학연구』 13집(1997. 6), 241-242.

에 安顯에게 “요즈음 임금님(선종)의 뜻을 받들어 제종의 장소를 모아 겨우 수 천 권을 새겼다.”⁴⁹⁾는 의천의 편지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⁵⁰⁾ 또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생각되지만 원우 원년(1086)에 章衡은 『大宋杭州惠因院賢首教藏記』에서 “(의천이) 경론의 소초 7,500여권을 조판, 인쇄하였다.”⁵¹⁾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교장도감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교장이 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오야 도쿠조는 홍왕사 교장도감의 간행본을 주 대상으로 봄으로써 교장의 전체의 간행을 간과한 것이었다. 현재 국내의 연구도 『교장총록』에 수록된 1,010부 4,857권⁵²⁾이 모두 판각되었다는 주장⁵³⁾이 있으나 제시된 근거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지금까지 확인되는 교장의 간행방식⁵⁴⁾은 1090년 이후 홍왕사 교장도감의 간행본, 1090년 이전부터 간행한 금산사 광교원 등의 국내사찰 간행본, 1087년에 송나라로부터의 수입본, 초조대장경이 일단락된 이후 간행된 초조대장경 추가본 등 4부류가 있다.⁵⁵⁾

49) 『大覺國師文集』 권11 狀, 上大宋行者顏顯書. “比來奉王旨, 鳩集諸宗章疏, 僅數千卷, 鏤板次.”

50)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大覺國師文集』 권15)는 내용이 部分缺落되었으며 이 글을 쓴 시기도 전하지 않지만 이 편지로 미루어 보면 1089년 훨씬 이전일 것이다. 이 사실은 慧德王師 韶顯이 戊辰年(1088)에 『阿彌陀經通贊疏』를 간행한 기록과 상관성 있는 기록으로 판단된다. 또 『교장총록』 권1의 “仁王經 注4卷 科1卷 淨源述”에 해당하는 『注仁王護國般若經』의 행자수는 5행15자로서 교장도감 간행본과는 다르며, 이 역시 교장도감이 설치되기 이전의 판각본이다.

51) 『大覺國師外集』 권9. “高麗國祐世僧統義天 … 印造經論疏鈔, 總七千五百餘[卷].”

52)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深求堂, 1980), 72.

53) 김성수, “고려 諸宗教藏의 가치와 의의에 관한 연구,” 『불교학연구』 제30호(2011. 12), 39-40.

54) 박상국, “의천의 교장: 교장총록의 편찬과 교장간행에 대한 재고찰,” 『보조사상』 11집(1998), 92(완간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1091년부터 1102년까지 홍왕사에서 봉선초조한 것, 금산사 광교원과 해인사 등 지방사찰에서 판각한 것, 1090년 이전의 판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서수정,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의 佛敎書誌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3), 62-69(① 송에서의 수입본, ② 금산사 광교원 및 고려사찰판본, ③ 대홍왕사 교장도감판본, ④ 조선 건경도감증수본).

55) 교장이 4부류의 방식으로 간행되었고, 『교장총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華嚴經談玄決擇』 6권이 수장 2년(1096)에 홍왕사에서 간행된 사실로 보아 현전하는 해인사 소장의 고려 목판인 『十門和諍論』, 『菩薩戒本持犯宗要』, 『起信論筆削記』, 『起信曉疏』, 『起信論科』 등

3.1 홍왕사 교장도감

창건 후 종파에 소속되지 않았던 홍왕사는 의천이 주지로 임명되면서 화엄종 소속이 되었다.⁵⁶⁾ 의천은 선종 8년(1091)에 南遊에서 얻은 불서 4,000권을 (대상으로) 홍왕사에 교장사(도감)를 두고 간행을 시작하였다.⁵⁷⁾ 이곳에서 간행된 초기의 장소들은 “함께 교정하고 각공들에게 목판에 새기도록”⁵⁸⁾ 하였으므로 교정을 거친 고려의 독자적인 교장이었다. 그러나 교장도감에서 언제까지 장소를 간행하였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다만 교장도감에서 간행된 장소류 중에서 『法華玄論』 권제3-4가 숙종 7년(1102)에 간행되었으므로 의천이 입적한 후 최소한 1년 가량은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현재 원각판으로 전하는 것으로는 일본 東大寺圖書館에 소장중인 『大方廣佛花嚴經隨疏演義鈔』 권제1상부터 권제20하⁵⁹⁾까지 40축과 일본 大東急紀念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貞元新譯花嚴經疏』 권제10의 1축, 『法仁王護國般若經』 권1-4 등⁶⁰⁾ 아주 일부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다행히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홍왕사 교장도감본들을 번각함으로써 더 많은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에 송광사 사천왕상에서는 12종 14책의 불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妙法蓮華經續述』 권5-6⁶¹⁾과 『圓覺經大疏釋義抄』 권13⁶²⁾ 등은 홍왕사 교장도감본

도 교장의 일부로 볼 수 있다.

- 56) 남동신, “고려 중기 왕실과 화엄종 - 왕실 출신 화엄종 5國師를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79호(2011), 47.
- 57) 金富軾, 『高麗國五冠山大華嚴靈通寺贈諡大覺國師碑銘并序』(許興植,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578-579). “又於辛未春, 南遊搜索所得書, 無慮四千卷… 請置教藏司於興王寺, 召名流校正謬缺, 使上之鉛槧.”
- 58) 金富佺奉 宣撰, 『陝川般若寺元景王師碑』, “興王寺… 相與校正, 乃命工鏤板.”
- 59) 박상국, “의천의 교장: 교장총록의 편찬과 교장간행에 대한 재고찰,” 『보조사상』 11집(1998), 92-94(중국 산서성 옹현의 불공사 석가탑에 봉안된 불상에서 나온 같은 서명의 遼本을 교정한 번각본이다).
- 60) 천혜봉, 『고려대장경과 교장의 연구』(서울: 범우, 2012), 212-222.
- 61) 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興王寺奉宣雕造.
- 62) 大安九年癸酉歲(1093)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 / 天順六年壬午歲(1482)朝鮮國刊經都監奉教重修.

의 번각본이었다.⁶³⁾ 흥왕사 교장도감에서 간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교장을 천혜봉 교수의 최근 조사⁶⁴⁾와 일인학자들의 연구⁶⁵⁾를 참고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흥왕사 교장도감에서 간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교장

	서명	찬술인 (저자)	원간기 / 증수간기	근거 (전본 또는 수록문헌)
1	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1권)	崔致遠	大安八年壬申歲(1092)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大正新修大藏經 50권
2	般若波羅蜜多心經疏(1권)	法藏	大安九年癸酉歲(1093)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 /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教重修	간경도감 증수본
3	圓覺經大疏釋義抄 권제13	宗密	大安九年癸酉歲(1093)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 /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教重修	간경도감 증수본 (보물 제1468호)
4	大乘阿毘達磨雜論疏 권제13-14	玄範	大安九年癸酉歲(1093)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 / [重修記 缺落]	[간경도감 증수본] 보물제205호

63) 강순애, “順天 松廣寺 四天王像의 腹藏典籍考,” 『서지학연구』 제27집(2004), 27-61(발견된 장소류 중에서 흥왕사 교장도감의 간기가 남아있는 『妙法蓮華經續述』 권5-6(壽昌元年乙亥歲高麗國興王寺奉宣雕造), 『圓覺經大疏釋義抄』 권13(大安九年癸酉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 / 天順六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重修) 외에 『法華經玄讚會古通今新抄』 권1-2, 『成唯識論述記』 권6, 『成唯識論了義燈抄』 권3-4,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권5-6, 『妙法蓮華經玄義』 권3-4, 『成唯識論義景鈔』 권12, 19 등 6종도 교장도감본을 저본으로 한 후각본임을 밝혀 놓았다).

송일기, 『송광사 정보박물관 불서전시 도록』 (순천: 송광사 정보박물관, 2004).

64) 천혜봉, 『고려대장경과 교장의 연구』 (서울: 범우, 2012), 223-257.

65) 宇都宮啓吾, “十二世紀における義天版の書寫とその伝持について,” 『南都佛教』 제81호(2002), 64.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演密鈔』의 3첩 중에서 2권과 8권 등 2첩에만 간행기록이 있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간행기록이 없는 나머지 한 첩은 몇 권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攷』 (東京: 便利堂, 1937), 56, 65, 67. 『高麗續藏雕造攷: 圖板上』, 鳩摩羅什이 한역한 『金剛般若經』(1권)도 善熹의 『辯非集』(至壽昌元年, 詔刊此經, 於大興王寺)의 기록을 근거로 교장도감의 간행본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장의 범주에 들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교장의 간행방식과 망실

	서명	찬술인 (저자)	원간기 / 중수간기	근거 (전본 또는 수록문헌)
5	大方廣佛花嚴經隨疏演義鈔 권제1상부터 권제20하		大安十年~壽昌二年	東大寺圖書館(40축)
6	貞元新譯花嚴經疏 권제10		壽昌元年	大東急紀念文庫
7	注仁王護國般若經 권1-4			조명기 구장 (보물 제890호)
8	金剛般若波羅密經略疏 (1권)	智儼	壽昌元 ⁶⁶⁾ 甲戌歲(1094)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후인본
9	妙法蓮華經續述, 권제1·2·5·6	慧淨	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간경도감 중수본] (보물 제206호)
10	淨名經集解關中疏 권제3·4	道液	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간경도감 중수본] (보물 제736호)
11	華嚴經談玄決擇 권제2-6	鮮演	壽昌二年丙子歲(1096)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叢續藏經
12	地持論義記 권3하, 4상, 5하	慧遠	壽昌三年丁丑歲(1097)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叢續藏經
13	圓覺禮懺略本 권제3-4	宗密	壽昌三年丁丑歲(1097)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간경도감 중수본]
14	金剛般若經義記 상하권	知恩	壽昌四年戊寅歲(1098)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간경도감 중수본]
15	金剛般若經疏開玄鈔 권제4-6	公哲	壽昌四年戊寅歲(1098)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 天順五年辛巳歲(1461)朝鮮國刊經都監奉敎重修	[간경도감 중수본] (보물 제207호)
16	大般若涅槃經疏 권제9-10	法寶	壽昌五年己卯歲(1099)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간경도감 중수본] (보물 제90호)
17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贊科文(1권)	思孝	壽昌五年己卯歲(1099)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간경도감 중수본] (보물 제204호)
18	釋摩訶衍論贊玄疏 권제5	法悟	壽昌五年己卯歲(1099)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 正應元年戊子(1288?)九月...於高野山金剛三昧院	일본 高野山本
19	釋摩訶衍論通玄鈔 권제1	志福	壽昌五年己卯歲(1099)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 弘安五年壬午(1282)九月...於高野山金剛三昧院	일본 高野山本

66) [大安十]

	서명	찬술인 (저자)	원간기 / 중수간기	근거 (전본 또는 수록문헌)
20	釋摩訶衍論通玄鈔 권제2	志福	壽昌五年己卯歲(1099)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일본 東寺觀智院(29-13)
21	法華玄論 권제3-4	吉藏	乾統二年壬午歲(1102)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	[간경도감 중수본]
22	大般涅槃經義記圖旨鈔 권제13-14	諱空	원간기 결락 / 天順五年辛巳歲(1461)朝鮮國刊經都監奉敎重修	간경도감 중수본
23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義釋演密鈔 권1	覺苑	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大東急紀念文庫 사본
24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義釋演密鈔 권제7	覺苑	원간기 결락 /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敎重修	간경도감 중수본
25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演密鈔 권2		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일본 石山寺 소장 사본
26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演密鈔 권8		壽昌元年乙亥歲(1095)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일본 石山寺 소장 사본
27	首楞嚴經義疏注經	子璿	원간기와 중수간기 결락	박봉석의 연구
28	華嚴經論 권제50-56	靈辨	원간기와 중수간기 결락	조명기의 연구
29	妙法蓮華經玄義 권제3-4	智顗	원간기와 중수간기 결락	[萬德寺] 간본 “邈”함 ⁶⁷⁾
30	法華文句記 권제5-8	湛然	원간기와 중수간기 결락	[萬德寺] 간본

3.2 금산사 등 국내사찰

의천이 주도한 교장은 흥왕사에 교장도감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金山寺 등 지방사찰에서 간행되고 있었다. 곧 『교장총록』이 완성되기 이전인 태강 9년(1083)부터 『法華玄贊』, 『唯識述記』⁶⁸⁾ 등 장소 32부 353권이 慧德王師 韶顯(1038~1096)의 주도로 금산사 광교원에서 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⁶⁹⁾ 또 소현은 의천의

67) 『교장총록』권상 『法華經』 아래의 “玄義 10卷 智者 說.”

68) 『法華玄贊』은 『교장총록』권상 『法華經』 아래의 『玄贊』10卷 窺基 述, 『唯識述記』는 『교장총록』권하 『成唯識論』 아래의 『述記』20卷或10卷 窺基 述.

69) 『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許興植 編, 『韓國金石全文』中世·上, 1984, 544). “師曾於金山寺, 選勝于寺之南走六十許步地, 創成一院, 額號廣敎, 仍筆刻雕經板置于院 … 自太

洪願을 도와 무진년(1088)에 『阿彌陀經通贊疏』를 광교원에서 새겼고,⁷⁰⁾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권5·6도 1091년에 간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의천이 1088년 11월 이전에 安顯에게 “요즈음 임금님(선종)의 뜻을 받들어 제종의 장소를 모아 겨우 수 천 권을 새겼다.”⁷¹⁾고 밝힌 사실과 상통한다.

이자연의 다섯째 아들인 소현은 1048년에 법상종의 海麟을 통해 출가하였고, 문종은 1065년에 화엄종의 난원에게 의천을 맡겼다.⁷²⁾ 소현이 일찍부터 교장간행을 지원하게 된 것은 이 일이 종파를 망라하는 왕실의 사업이자 외속이라는 친인관계도 작용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흥왕사에 교장도감이 설치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계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곧 『인왕호국만야경소법형초』 권6⁷³⁾에는 당시 공덕주이자 玄化寺 주지였던 소현이 대안 8년(1092) 7월 24일에 “신미년(1091) 윤8월 6일부터 임신년(1092) 6월 10일까지 금산사 광교원에서 汴京의 인본을 거듭 새겼다.”⁷⁴⁾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안 5년(1089) 2월에는 諦觀의 『天台四教儀』 1권이 해인사에서 중각⁷⁵⁾되었는데 해인사 역시 금산사 광교원과 함께 교장의 간행사업을 지원한 사찰이었

康九年，至師之末年，搜訪慈恩所撰法華玄贊，惟識述記等，章疏三十二部，共計三百五十三卷，考正其本，募工開板”

70) 『阿彌陀經通贊疏』 권하(『교장총록』 권상, 『小阿彌陀經通贊疏』 2卷, 窺基 述에 해당)의 권미, 大屋德城, 『高麗續藏雕造攷』 (東京: 便利堂, 1937), 59. “此慈恩所撰阿彌陀經通贊一卷者, 祐世僧統於元豐元祐之間, 入于中華, 求得將到流通之本也. 予助洪願, 付於廣教院, 命工重刻, 自戊辰十月十九日起首, 至十二月十日畢乎矣.”

71) 『大覺國師文集』 권11 狀, 上大宋行者顏顯書. “比來奉王旨, 鳩集諸宗章疏, 僅數千卷, 鏤板次.”

72) 남동신, “고려 중기 왕실과 화엄종 - 왕실 출신 화엄종 5國師를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79호(2011), 46.

73) 『교장총록』 권1, 仁王經 아래의 “法衡鈔6권 科2권 遇禁述.”

74) 천혜봉, 『고려대장경과 교장의 연구』 (서울: 범우, 2012), 266의 사진.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鈔』 卷第6 後記, “海東金山寺廣教院 重彫汴京印本 榮公所撰法衡鈔六卷一部 起自辛未閏八月六日 至於壬申六月十日手畢. 流通願意者 窮尋贊疏之鈔文 大悟釋經之疏旨 能護之法已具 所護之邦必興 時大安紀曆八年首秋月二十四日於保慶院記. 功德主靈鷲山大慈恩玄化寺住持普利了真精進融慧廣祐僧通釋 韶顯 題.”

75) 大屋德城, 『高麗續藏雕造攷』 (東京: 便利堂, 1937, 60). “大安五年歲次己巳二月日海印寺重刻.”

다. 이렇게 전라도의 금산사와 경상도의 해인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실을 보아 당시의 교장간행 사업은 흥왕사를 중심으로 하여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3.3 해외 수입

교장의 간행사업은 국내의 사찰에서 처음 시작되었지만 다른 방식도 동원되었다. 그것은 간행비용을 지불하고 송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이었다.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는 이러한 시도는 국가나 왕실의 물질적인 지원⁷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기록에 보이는 이러한 사례는 방대한 화엄경 연구주석서를 새겨서 수입한 것이었다. 이 사실은 선종 4년(1087) 3월에 徐戡 등이 신주화엄경판⁷⁷⁾ 또는 화엄경판⁷⁸⁾을 바쳤다는 우리 측의 기사와 은 3,000량을 받고 협주화엄경⁷⁹⁾ 2,900여장⁸⁰⁾을 새겨 고려에 보내었다는 蘇軾의 기록에서 확인이 된다. 『신주화엄경』 또는 『협주화엄경』이란 당나라 澄觀이 지은 『화엄경소』를 淨源이 주해를 한 것으로 모두 120권이나 되는 거질이며,⁸¹⁾ 『대소주경』 또는 『주화엄경』 등으로도 일컬었다. 이렇게 기록에 따라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大方廣佛

76) 『大覺國師文集』 권11 狀, 上大宋淨源法師書 [第1]. “所有新注正(貞)元花嚴經, 某佇望多年, 此者, 幸叨賜…今却得國王, 於卷後簽銜, 仍捨淨財.”

77) 『高麗史』世家 권제10, 宣宗 4年 3月 甲戌條. “甲戌 宋商徐戡等二十人來, 獻新註華嚴經板.”

78) 『高麗史節要』 권6, 宣宗 4年(1087) 3月. “宋商徐戡等二十人來, 獻華嚴經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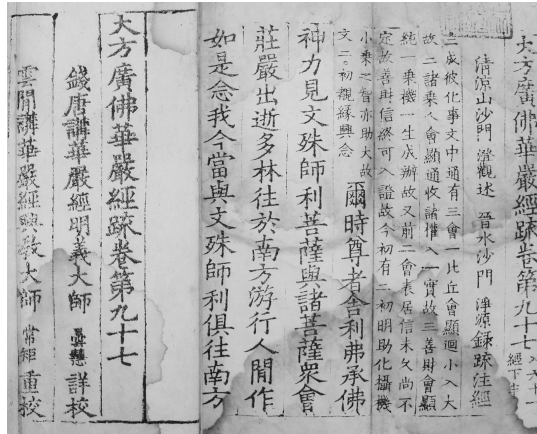
79) 『東坡奏議』 권제6 論高麗進奉狀(『蘇東坡全集』,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83. 310). “元祐4年(1089) 11月 3日, 一. …徐戡先受高麗錢物, 於杭州彫造夾注華嚴經, 費用浩汗印板既成, 公然於海舶載去交納, 却受本國厚賞, 官私無一人知覺者.”

80) 『東坡奏議』 권제8 乞禁商旅過外國狀(412). “元祐5年 8月 15日…去年(元祐4年: 宣宗6年: 1089) 11月23日奏, 泉州百姓徐戡…爲高麗國, 雕造經板二千九百餘片, 公然載往彼國, 却受酬答銀三千兩.”

81) 釋法幢, “宋代賢首中興教主淨源之生平探討: 兼談大覺國師義天與慧因高麗寺,” 『全國佛學論文聯合發表會論文集』 第20屆(2009. 9. 26), 20, 32.

위에 따르면 2007년 5월 1일에 杭州에 복원된 慧因高麗寺(옛 해인사)에는 이 주석서가 전시되어 있는데 판본은 양산 통도사의 중간본이라고 한다. 이 소는 『洪武南藏』, 『新纂卍續藏』, 『卍大日本續藏經』, 『卍續藏經』(新文豐版) 등에 수록되어 있다.

華嚴經疏」이다. 이 목판은 조선 세종 때 해인사 대장경판을 구청하는 일본사신을 통해 일본에 사급되었다.⁸²⁾ 당시 일본에 사급된 경판에 대해 의천이 주도한 교장이 아닌 것으로 본 초기의 일인학자도 있었으나⁸³⁾ 교장의 하나임은 분명하다.⁸⁴⁾



<사진 1>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소」 권97의 권수와 권미

- 82) 『世宗實錄』 권22, 5년癸卯 12月 壬申條. “上又曰 國王所求大藏經板, 我國有唯一本, 難以塞請, 但欲以密教大藏經板, 註華嚴經板, 漢字大藏經, 全部送之.”
 『世宗實錄』 권26, 6년(1424) 1월 8일. “上遣護軍尹仁甫, 諭主籌等賜 … 注華嚴經板 … 注華嚴經板, 則上世宗師, 大覺和尚, 以國命, 請于宋朝, 浮海以來.”
 『世宗實錄』 권26, 6년甲辰 12月 戊午條. “日本國回禮使, 上護軍朴安臣, 副使大護軍李藝, 復命…至若所需藏經本板, 只有一件, 祖宗所傳義, 不可以與人也. 且今賚來密教大藏經本板, 亦我國之所重, 注華嚴經板, 則上世宗師, 大覺和尚, 以國命請于宋朝, 浮海以來, 其古今神異之跡, 不可備論, 金字華嚴經, 護國仁王經, 阿彌陀經, 釋迦譜等四經, 實我殿下之寶藏”
- 83) 河村道器, 義天藏演義鈔板の日本將來に就いて, 『靑丘學叢』 제6호(1931. 11), 124-131. 그러나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는 “高麗朝の大藏經: 上,” 『東洋學報』 제13권 제3호(1923), 53-54에서 조선 세종 때 일본으로 사급된 주화엄경판, 즉 姜碩德이 말한 淸涼의 화엄경소는 의천 자신이 송에서 가져 온 것으로 보아 신주(협주)화엄경과는 다른 경판으로 간주하였다. 오야 겐묘(大屋徳城)는 『高麗續藏雕造攷』(102-103)에서 조선 세종때 일본으로 사급된 주화엄경판이 신주화엄경판, 소식이 말한 협주화엄경판 그리고 강석덕이 일컬은 청량소판과 동일하다고 하면서 이 경판은 속장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하였다.
- 84) 『교장총록』 권1. 大華嚴經. “大疏注經 一百二十卷 淨源移淸涼大疏注於經下.”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78), 95.

권수가 방대한 만큼 현재 국내에는 인출시기가 다른 인본들이⁸⁵⁾ 여러 기관이나 개인 소장으로 전한다.⁸⁶⁾ 그 중 많은 수량으로는 2011년에 보물 제1707호로 지정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의 41첩이 있다. 이외에도 아단문고 소장의 권제42(제891호)와 권제28~30·100~102(제892호), 관문사 소장의 권제41(제964호),⁸⁷⁾ 구인사 소장의 권제68(제1013호), 호림박물관 소장의 권제84·100·117(제1106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권제30(제112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의 권제21·24(제1128호),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의 권제48·64·83(제1409호) 등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⁸⁸⁾ 또 권제97은 보물 제959호(경주기림사소조비로자나불복장전적), 권제3~4는 충북시도유형문화재 제280호(청원군)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의천이 정원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작년에 『花嚴科鈔略』⁸⁹⁾의 간행을 알고 은 200량을 보냈다.”⁹⁰⁾는 기록을 보아 교장의 수입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송금한 은 200량이 淨財가 아닌 각판비용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4 초조대장경 추가

『교장총록』과 팔만대장경(신조대장경)의 대장목록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불전으로는 『法苑珠林』,⁹¹⁾ 『一切經音義』, 『續一切經音義』 등이 있다. 그래서 이

85) 상하단변, 유계, 20행15자(작은 자는 40행20자).

86) 남권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초조대장경과 대방광불화엄경소,” 『한국학논집』 제37집(2008), 60(권1-2와 권92-93, 권37-38, 권45-46과 권94-95, 권48, 64, 83, 98, 120 등은 국내 개인소장, 권21 등 37첩은 일본의 정가당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또 권1(2종), 권14, 권36, 권91-92 등도 직접 실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87) 홍무 5년(공민왕21, 1372)에 변상도를 완성하여 오관산 영통사에서 인출.

8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권30(보물 제1124호), 구인사 소장의 권68(보물 제1013호), 한중연 소장의 권제21(제1128호),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의 권48, 64, 83(제1409호) 등 4건은 계명대 소장본과 함께 인출되어 최소한 17세기 초기까지 같은 질로 전해지던 것들이다.

89) 『교장총록』권상 『華嚴經』 아래의 “科20卷 淨源刊定”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90) 『大覺國師文集』 권제11 狀, 上大宋淨源法師書 제2. “去年承知, 刊勒花嚴科鈔略, 貢去銀二百兩”

91) 『교장총록』 권3에 “法苑珠林 一百卷 道世集.”

불전들은 이 시기에 처음으로 대장경에 편입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정보문화재단 소장의 『법원주립』 권82가 공개됨으로써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었다.⁹²⁾ 교장과 초조대장경의 관련성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곧 『법원주립』 권82는 권미의 “大宋咸平元年 奉」勅雕”와 같이 함평 원년(998)에 새겼다는 원간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송본의 변각본임을 알 수 있다.⁹³⁾ 이 『법원주립』 권82는 초조대장경이 일단락된 뒤에 조성된 것이므로 천혜봉 교수는 초조대장경의 追雕本⁹⁴⁾이라고 하였다.⁹⁵⁾ 교장의 간행은 초조대장경이 거의 완성되어 가던 무렵에 시작되었고, 교장도감을 설치한 이후에 더욱 본격적인 사업이 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에 『교장총록』에 수록된 불전을 대장경의 일부로 간행한 것이므로 교장은 초조대장경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⁹⁶⁾

92) 종래 팔만대장경의 대장목록을 기준으로 갱합의 대장목록 앞의 것은 초조대장경에 속하고, 대장목록 뒤의 것은 팔만대장경을 완성할 때 편입시킨 것으로 보았다. 이제 『법원주립』이 공개됨으로써 갱합의 대장목록 뒤에 수록된 불전이라도 초조대장경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도 또 다른 수확이다.

93) 불전명 아래의 “二十八紙”와 같이 모두 28장이며, 1장은 23행 14자이다. 종이는 닥피가 더러 보이며, 권의 끝에는 燕尾 모양으로 종이를 절단하고 대나무 축에 붙여 놓았다.

94) 추조란 추가로 새긴 것을 의미한다. 초조대장경의 완성을 1087년으로 본다면 완성 후에 새긴 경판들은 추조본이라는 명칭이 적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초조대장경의 완성연대를 1087년으로 확정함으로써 이후에 간행된 불전들을 추조본이라고 일컬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곧 『법원주립』 권82가 공개됨으로써 초조대장경의 범위와 완성기간도 새롭게 조명될 필요성도 있다. 지금까지 천혜봉 교수의 설을 따라 현종 때 새긴 대장경과 문종을 거쳐 선종 4년(1087)까지 77년간 새긴 대장경을 일장으로 보아 초조대장경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 각판된 것은 추조 또는 추가본이라고 일컬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1087년이라는 초조대장경의 작성 하한년도는 근래에 추정된 것이다. 『법원주립』의 공개를 통해 알게 된 1087년 이후의 각판본이 초조대장경에 속한다면 초조대장경의 작성기간도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학계에서 합의되기 위해서는 대장목록 이후에 편입된 불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계통의 간본이 더 공개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95) 천혜봉, 「천년의 기다림, 초조대장경」 (서울: 정보문화재단, 2011), 236-238.

96) 『법원주립』은 100권이 되는 방대한 수량이므로 동 시기에 교장과 대장경으로 함께 간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진 2> 호림박물관 소장의 「법원주림」 권82의 권수와 권미

또한 「교장총록」에서 「법원주림」 다음에 수록되어 있는 「속일체경음의」 10권과 「일체경음의」 100권도 각각 대장목록 끝의 雞합과 田~洞함에 수록되어 있다. 이들도 「법원주림」과 마찬가지로 초조대장경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⁹⁷⁾ 이렇게 의천이 주도하던 교장의 간행은 초조대장경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4. 봉안과 망실

의천이 주도한 교장의 완성정도에 대해서는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모두 간행하였다는 문헌기록과 다양한 방식으로 간행된 사실로 본다면 모두 간행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모두가 간행되었다면 이 목판들

97) 천혜봉, 「고려대장경과 교장의 연구」(서울: 범우, 2012), 111-114(이 음의서들은 「법원주림」과 함께 초조대장경의 추조본 형식으로 간행되었고, 팔만대장경을 각성할 때 이 추조본을 번각한 것이다).

高田時雄, “藏經音義의 敦煌吐魯番本と高麗藏,” 『敦煌寫本研究年報』 제4호(2010. 3), 12. 다카다 도키오(高田時雄)는 오노겐묘(小野玄妙)의 설을 따라 “이 음의서들은 거란본을 저본으로 삼아 高麗藏再彫(팔만대장경) 때에 補刻한 것으로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곧 「법원주림」 등이 팔만대장경을 완성할 때 처음 편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은 어디에 봉안되었다가 망실되었는지는 자못 궁금해진다. 여러 방식으로 작성된 목판들을 한 곳에 모아 두었는지 아니면 연고가 있는 사찰에 각기 분치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근거할 자료가 없다. 그렇지만 교장이 홍왕사 교장도감본, 국내 사찰본, 해외 수입본, 초조대장경 추가본 등으로 구성된 만큼 이들 모두가 한 곳에 봉안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 중에서 송나라 상인이 선종 4년(1087) 3월에 바친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은 분치되고 있었음이 확인이 된다. 처음 이 목판이 어느 곳에 봉안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⁹⁸⁾ 수입된 지 285년이 지난 공민왕 21년(1372) 9월에 변상이 없는 것을 한으로 여긴 李美冲 등이 都變相을 새겨 보충하여 靈通寺에 두었던 것이다.⁹⁹⁾ 이 목판은 이후 조선 세종 5년(1423) 10월까지 여전히 영통사에 봉안되고 있었다. 그것은 이 목판을 일본에 사급하기 위해 배로 실어오도록 한 기사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¹⁰⁰⁾ 이렇게 교장의 한 영역이 되는 2,900여장의 수입목판은 화재로 소실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사급되어 해외로 유출됨으로써 망실되었다. 또한 조선의 간경도감에서 교장들을 각판할 때 원각판은 그대로 이용하고 결본만을 보각한 사실로 보아 당시에 원각판이 제법 잔존되고 있었음¹⁰¹⁾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홍왕사에 교장도감이 설치되기 전부터 작성되었던 금산사 광교원 간행본이나 다른 국내 사찰의 간행본도 각기 분치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그것은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의 영통사 봉안과 대일본 사급, 조선 세조 때에 교장

98) 千惠鳳, 義天의 入宋求法과 宋刻 注華嚴經板, 『東方學志』 54-56합집(1987), 913(이 목판은 의천이 귀국 후 주지가 되었고, 교장도감을 설치한 대흥왕사에 처음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99) 千惠鳳, “義天의 入宋求法과 宋刻 注華嚴經板,” 『東方學志』 54-56합집(1987), 914-915. 刻注華嚴經都變相緣起, “此注經板, 乃大覺國師, 求法入宋, 泛海賁來也, 所恨但無此變相, 某等且依古範, 募工彫板, 留于五冠山靈通寺, 印施無窮者. 洪武5年(1372) 壬子 九月日.”

100) 『世宗實錄』 5癸卯 10月 壬申條. “傳旨于留後司曰 金沙寺眞言大藏經, 靈通寺華嚴經等板子, 及雲巖寺金字三本華嚴經一部, 金字單本華嚴經一部等, 以水站船隻載送.”

101) 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攷』 (東京: 便利堂, 1937). 76-77.

세조 때 간행한 교장도감본 교장은 고려 때의 원각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보았는데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각본의 잔존 등을 보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장은 한 곳에 一藏으로 봉안되다가 일시에 燒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현재까지 교장의 망실에 대해서는 현종 때 새긴 초조대장경의 소실 기록¹⁰²⁾을 근거로 符仁寺에서 함께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거나¹⁰³⁾ 흥왕사가 불이나 판목 거의 전부가 灰燼된 것으로 추정한다. 근자에도 일인학자들은 『교장총록』에 편입된 『일체경음의』와 『속일체경음의』 등의 교장은 초조대장경과 함께 몽고의 재앙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¹⁰⁴⁾ 교장의 망실에 대한 이러한 가설은 이미 망실된 것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일 뿐이므로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5. 결 언

의천이 간행을 주도한 교장은 간행, 봉안과 망실 등 많은 영역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교장의 실체가 애매하였기 때문이다. 교장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흥왕사 교장도감 간행본을 주 대상으로 보았으나 이후 금산사 광교원 등 국내 사찰의 간행본 및 해외 수입본 등도 교장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근자에는 『법원주립』 권82가 공개됨으로써 교장은 초조대장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간행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교장은 다양한

102) 『高麗史』世家 권제24, 高宗 38年 9月 壬午條. “幸城西門外 大藏經板堂, 率百官行香, 顯宗時板本 燬於壬辰蒙兵.”

李奎報, 大藏刻板君臣祈告文(『東國李相國集』 권25). “於是, 符仁寺之所藏, 大藏經板本, 亦掃之無遺矣.”

최남선, 『국민조선역사』 (서울: 동명사, 1946), 82.

“현종 때의 대장경과 선종조의 續大藏經이 거의 다 고종 19년(1232)의 몽고병난에 소실되었다.”

103) 菅野銀八, “高麗板大藏經に就いて,” 『朝鮮史講座特別會議』 (京城: 朝鮮史學會, [1930年代]), 4.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74), 77.

104) 高田時雄, “藏經音義의 敦煌吐魯番本と高麗藏,” 『敦煌寫本研究年報』 제4호(2010. 3), 12.

방식으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통일된 체제가 없었던 것이다. 교장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교장 목판의 망실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곧 초조대장경과 함께 몽고의 침입으로 모두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는 추정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도 교장에 대해 가능하다면 추정을 줄이고자하는 시도의 하나이다. 살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을 한역 삼장에 대한 신구찬술인 諸宗教義章과 소초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의천은 “모든 불가의 科教를 일장으로 집대성하여 유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송나라에서 입수한 3,000여권을 제종교장이라고 하였고, 총록의 이름도 「교장총록」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의천이 생각한 교장은 개개의 제종의장과 소초 등이 아니라 敎의 一藏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곧 경율론을 집대성한 것이 “大藏”이라면 이들의 연구 주석서를 집대성한 것을 “敎藏”으로 본 것이다.

둘째, 종래 의천이 주도한 교장은 1090년 이후의 홍왕사 교장도감 간행본, 1090년 이전부터 간행된 금산사 광교원 등의 국내사찰 간행본, 송나라로부터 수입한 간행본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근자에 공개된 「법원주립」 권82를 통해 교장은 초조대장경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간행되었던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교장은 모두 4부류의 방식으로 간행된 것이다. 그러므로 홍왕사 교장도감 간행본이 적다고 하여 아주 일부분만이 간행되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금산사 광교원에서는 홍왕사에 교장도감이 설치되기 이전인 1083년부터 교장의 간행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의천은 1088년 11월 이전의 편지에서 “제종의 장소를 모아서 수 천 권을 새겼다.”고 하였고, 1086년에 장형은 “(의천이) 경론의 소초 7,500여권을 조판, 인쇄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교장도감이 설치되기 전에 상당한 수량의 교장이 이미 간행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의천의 비명 등에는 교장도감에서 4,000권의 불서를 간행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권수는 국내 사찰에서 지원한 수량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넷째, 의천의 주문에 따라 송나라에서 수입한 「대방광불화엄경소」(120권)는

목판의 수가 2,900여장이나 되는 거질의 교장이다. 의천은 또 『화엄과초략』의 간행을 알고 은 200량을 보낸 일도 있었다. 그러므로 교장 중에는 수입목판이 더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당시 교장의 간행은 국내뿐 아니라 송나라의 일부지역까지 끌어들이는 국제적인 사업이었다.

다섯째, 현재까지 교장의 망실에 대해서는 符仁寺에서 함께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거나 흥왕사가 소실될 때 판목도 거의 전부가 灰燼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교장은 흥왕사 교장도감본 등 4부류로 구성된 만큼 이들이 한 곳에 봉안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수입된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은 세종 5년까지 개성의 영통사에 봉안되어 있다가 일본의 대장경판 구청에 대해 慰撫의 차원에서 일본에 내려주었다. 또 조선의 간경도감에서 각판할 때도 원각판은 그대로 이용하고 결본만을 보각한 사실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교장 모두가 한 곳에 봉안되다가 일시에 소실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참고문헌>

[원전 및 자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세종실록』.

『가산불교대사람』. 서울: 가산불교문화원, 1998.

『국역대각국사문집』.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대각국사문집』.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74.

『대각국사문집』. 이상현 옮김,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

『불교용어사전』. 서울: 경인문화사, 1998.

『속장경』. 서울: 보림각, 1977.

『신편제종교장총록』. 경성: 조선인쇄(주), 1933.

- 『한국금석전문』 중세·상. 허홍식 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4.
- 『한국불교전서』 제4책: 고려시대편1.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2.
-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76.
- 『소동파전집』. 서울: 경인문화사, 1983.
- 『卍續藏經』. 臺北: 新文豐 出版公司, 1977.
- 『佛光大辭典』. 臺灣 高雄: 佛光出版社, 1988.
- 『新纂大日本續藏經』. 東京: 國書刊行會, 1980.

[단행본]

- 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 서울: 탐구당, 1974.
-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박상국. 『전국사찰소장목판집』.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 송일기. 『송광사 정보박물관 불서전시 도록』. 순천: 송광사 정보박물관, 2004.
- 조명기. 『고려대각국사와 천태사상』. 서울: 경서원, 1982.
- 천혜봉. 『고려대장경과 교장의 연구』. 서울: 범우, 2012.
- 천혜봉. 『천년의 기다림, 초조대장경』. 서울: 성보문화재단, 2011.
- 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 서울: 범우사, 1990.
- 천혜봉. 『나려인쇄술의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1978.
- 채관. 최기표 옮김. 『천태사교의』.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 최남선. 『국민조선역사』. 서울: 동명사, 1946.
- 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攷』. 東京: 便利堂, 1937.
- 大屋徳城. 『鮮支巡禮行』. 京都: 東方文獻刊行會, 1930.
- 小野玄妙. 『佛書解説大辭典』. 改訂版, 東京: 大東, 1967.

[논문]

- 강순애.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복장전적고.” 『서지학연구』 27집(2004. 6).
- 김성수. “고려 세종교장의 가치와 의의에 관한 연구.” 『불교학연구』 30호(2011. 12).

- 김영미. “11세기후반~12세기초 고려·요 외교관계와 불경 교류.” 『역사와 현실』 43집(2002).
- 김영태. “대각국사의 고려교장.” 『韓國佛教史正論』. 서울: 불지사, 1997.
- 남권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초조대장경과 대방광불화엄경소.” 『한국학 논집』 제37집(2008).
- 남동신. “고려 중기 왕실과 화엄종 - 왕실 출신 화엄종 5국사를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79호(2011).
- 민영규. “新羅章疏錄長編.” 『백성옥박사송수기념불교학논문집』. 서울: 동국대학교, 1959.
- 민영규. “신편제종교장총록(1090).” 『한국의 고전백선』: 신동아 1959년 1월호 부록, 1959.
- 박노자.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 편찬, 교장 간행의 문화사적 의미.” 『사학연구』 58·59호(1999).
- 朴奉石. 義天續藏の現存本に就いて. 『朝鮮之圖書館』 第3卷 第6號(1934).
- 박상국. “의천의 교장: 『교장총록』의 편찬과 교장간행에 대한 재고찰.” 『보조사상』 11집(1998. 2).
- 박용진.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 편찬과 화엄 및 천태 章疏.” 『중앙사론』 22집(2005. 12).
- 본각. “『十二因緣觀』의 저자와 사상에 대한 재고찰.” (서지사항불명)
- 서수정. “의천 신편제종교장총록의 불교서지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3.
- 오용섭. “『신편제종교장총록』의 속장수용성.” 『서지학연구』 13집(1997. 6).
- 이영자.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의 독자성.” 『불교학보』 19집(1982).
- 이인재. “김부식과 박호·임존의 의천 평가.” 『역사교육』 99집(2006. 9).
- 이종수. “초조대장경과 속장경의 편찬.” 『법회와 설법』 (2008. 7).
- 임혜경.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 편찬과 그 의의.”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 조명기. “대각국사의 천태의 사상과 속장의 업적.” 『백성옥박사송수기념불교학논문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 문화연구원, 1959.
- 천혜봉. “의천의 입송구법과 송각 주화엄경관.” 『동방학지』 54-56합집(1987).
- 최병헌. “대각국사 의천의 渡宋 활동과 고려·송의 불교교류.” 『진단학보』 71-72합집(1991).
- 최은영. “신편제종교장총록에 대한 재고찰: 일본 장소목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불교학보』 57집(2010).
- 한기문. “고려전기 부인사의 위상과 초조대장경판소장 배경.” 『한국중세사연구』 28호(2010).
- 허정희. “의천의 불교적 이상과 실천: 입송구법을 중심으로.” 『불교연구』 28집(2008. 2).
- 釋法幢. “宋代賢首中興敎主淨源之生平探討:兼談大覺國師義天與慧因高麗寺.” 『全國佛學論文聯合發表會論文集』 第20屆(2009. 9. 26).
- 高田時雄. “藏經音義의 敦煌吐魯番本と高麗藏.” 『敦煌寫本研究年報』 第4號(2010. 3).
- 菅野銀八. “高麗板大藏經に就いて.” 『朝鮮史講座特別會議』, 京城: 朝鮮史學會, [1930年代].
- 吉田 剛 (吉田叡禮). “北宋代に於ける華嚴興隆の経緯: 華嚴教學史に於ける長水子璿の位置づけ.” 『駒澤大學禪研究所年報』 第9号(1998. 3).
- 大屋徳城. “義天續藏の日本傳來に就て.” 『朝鮮』 第100號(1923).
- 林 鳴宇. “『新編諸宗教藏總錄』から見た宋初天台の動向.” 『印度學佛敎學研究』 51-2號: 通號102(2003. 3).
- 佐藤厚. “대각국사 의천의 입송: 敎와 史의 측면에서.”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10호(2006. 6).
- 池内宏. “高麗朝の大藏經(上).” 『東洋學報』 第13卷 第3號(1923).
- 河村道器. “義天藏演義鈔板の日本將來に就いて.” 『青丘學叢』 第6호(1931. 11).

